

9급모의평가 한국사

서유림 교수

서유림닷컴(www.seoyurim.com)

아모르이그잼고시학원

문 1. 다음 유물이 최초로 사용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nput type="radio"/> 가락바퀴	<input type="radio"/> 뼈바늘	<input type="radio"/> 돌보습
----------------------------	---------------------------	---------------------------

- ①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 ②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도 따로 설치하였다.
- ③ 미송리식 토기를 널리 사용하였다.
- ④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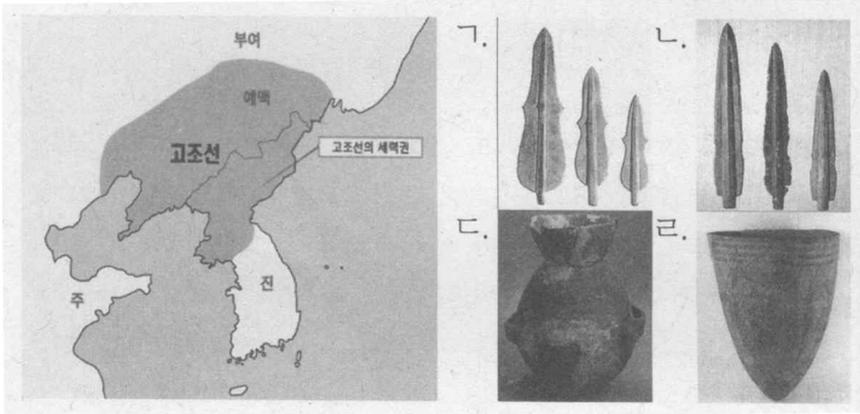
정답) ①

해설)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습은 모두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의 남경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어 잡곡류(벼농사 X, 조, 피, 수수의 잡곡류 경작)가 이미 신석기 시대에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쓴 주요 농기구로는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이 있다. 또한 농경 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도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 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가락바퀴 이용 원리)

- ① 신석기 시대에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고 이들 씨족은 점차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다.
- ②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청동기 시대의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창고와 같은 독립된 저장 시설을 집밖에 만들기도 하였고, 움집을 세우는 데에 주춧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도 따로 설치하거나 한쪽 벽면을 밖으로 돌출시켜 만들었다.
- ③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 ④ 농경생활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신석기 시대는 잡곡류가 경작되었고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문 2. 다음 지도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정답) ②

해설) 고조선 세력 범위를 뒷받침 해주는 유물은 가. 비파형동검과 다. 미송리식 토기이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 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 준다.

미송리식 토기는 평북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처음 발굴되었다.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청천강 이북, 여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한다. 이 토기는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간주된다.

나. 세형동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 시대로 접어 들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에 비파형 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다.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이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이 더욱 나아졌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은 무늬가 없는 것, 토기 몸체에 덧띠를 붙인 것, 눌러 찍은 무늬가 있는 것으로 각각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압인문 토기)라고 부른다.

문 3. 통일 신라 시대에 실시된 다음 정책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 | |
|------------------------------|------------------------------|
| <input type="radio"/> 녹읍 폐지 | <input type="radio"/> 국학 설치 |
| <input type="radio"/> 9서당 설치 | <input type="radio"/> 관료전 지급 |

- ① 골품 제도 확립
- ② 민족 통합 실현
- ③ 전제 왕권 강화
- ④ 유교 정치 이념 도입

정답) ③

해설) 통일신라 신문왕의 왕권강화 정책이다. 신문왕대는 태종무열왕대부터 시작된 신라의 중대왕실의 전제왕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힌 시기이다.

신문왕이 즉위하던 해에 왕의 장인 김흠돌의 모역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많은 귀족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귀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졌고, 이를 계기로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이어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은 계속 되었다.

신문왕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인재의 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학(國學)을 설립하고 여기에 경(卿) 1인을 두었다. 이것은 진덕여왕대에 이미 국학에 소속된 대사(大舍)라는 관직을 설치함으로써 국학설립을 위한 준비가 착수되었던 것인데 신문왕대에 와서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었다.

또한 중앙의 군사조직에 있어서는 신라인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보덕국 및 말갈인을 두루 포섭하여 9서당(誓幢)을 완성하였다.

내외의 관제정비와 짝하여 689년에는 관리의 녹봉으로 지급하던 녹읍(祿邑)을 폐지하고 해마다 세조(歲租)를 차등있게 지급하여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이것은 녹읍을 통한 관리들의 경제력 확대를 억제시킴으로써 전제왕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다. 김씨 왕족은 왕권 옹호 세력으로 변질되고, 박씨 세력이나 가야 및 고구려계 귀족은 점차 정권에서 소외되었다. 반면에 진골 귀족 세력에게 눌러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6두품 세력이 왕권과 결탁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들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거나 행정 실무를 맡아보았다

문 4. 다음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 부식은 아뢰옵니다. 옛날에는 여러 나라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 해동의 삼국도 지나온 세월이 장구하니,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마침내 늙은 신에게 명하여 편집하게 하였습니다오나, 아는 바가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 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 ② 기전체로 서술되어 본기, 지, 열전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 ③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 ④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움직임에서 편찬되었다.

정답) ④

해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 인종 대에 이르러 거란이 쇠퇴하고 여진족의 금이 새로이 등장하여 고려에 압력을 가해오면서 국내정치에 새로운 파동이 일어났다. 국제평화와 유교정치에 의해 주춤해진 복진

정책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나, 묘청을 대표로 하는 이른바 서경파 지식인의 반란이 그것이었다. 개경에 있는 유학과 관료와의 권력 투쟁적 요소도 함께 지닌 묘청 일파의 반란은 결국 대세에 밀려 유학과에 의해 진압되고, 고려는 다시금 유교정치에 고삐를 다그치게 되는데, 바로 유교정치의 재확립을 목표로 하여 관찬으로 편찬된 새로운 역사책이 김부식 등 11명의 유학자 관료들에 의해 쓰인 <삼국사기>였다.

①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고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②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기전체는 역사 사실을 서술할 때 본기(本紀)·열전(列傳)·지(志)·연표(年表) 등으로 구성하는 역사 서술 체재로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되어 중국·한국의 역대 왕조에서 정사 서술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한국의 역사서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대표적이다.

기전체는 기(紀)·전(傳)·지(志)·표(表) 등으로 구성하여 서술하는 역사 서술 체재로서 가장 중요한 기(紀)·전(傳)의 이름을 따서 기전체라고 한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③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④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서로는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은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문 5. 다음과 같은 정치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긴급 조치 발표
- ‘한국적 민주주의’ 강조
-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치

- ①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 ② 중화학 공업이 집중 육성되었다.
- ③ 3저 호황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 ④ IMF 외환 위기가 일어났다.

정답) ②

해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의 불법선거로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의 정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1961. 5. 16.).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민정 복귀의 약속을 외면한 채 헌법을 개정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다(1963).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또,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태로 피살되었고,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1979).

② 1960년대에 들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기간 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의 발전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에 추진된 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주력하여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공업 구조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① 삼백 산업이란 1950년대의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재 산업이다.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에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 미국이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미국의 원조 물자로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이 대량 공급되어 물자 부족이 해소되고, 소비재 공업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밀이나 면화 같은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와 당시 농촌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경제 원조가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원조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는 고충을 받았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많은 중소 기업이 파산했으며, 서민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었다.

③ 전두환 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내세워 구조 조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또, 과잉 투자 조정과 부실 기업 정리, 재정·금융의 긴축 정책 실시 등을 단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는 안정되었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아 고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④ 김영삼 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1993년에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또,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우고, 5·16 군사 정변 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문 6. 다음의 사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물은?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되었다.

- ① 칠지도
- ② 호우명 그릇
- ③ 진흥왕 순수비
- ④ 배리 석불 입상

정답) ②

해설) 사료는 광개토대왕비문에 적혀있는 것으로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신라는 처음 진한 소국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는데,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되었다(B.C 57). 이후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해 집단이 등장하면서 박·석·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왕)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4세기 내물왕 때 신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또한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왕권이 안정되고 다른 집단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내물왕 때에는 신라 해안에 나타나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호우명 그릇)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물기도 하였다. 그 후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한편, 고구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갔다.



호우명 그릇

- ① 칠지도는 왜와 백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 ③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 때에 이르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세운 비석이다. 진흥왕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특히, 한강 유역의 장악은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황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④ 배리석불입상은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에 있는 삼국시대의 불상이다.

문 7. 다음의 건의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나누어 백성의 이익 되는 일과 손해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임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 고려사절요 -

- 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 ②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실시되었다.
- ③ 지방에 12목이 설치되고 향리 제도가 마련되었다.
- ④ 5도와 양계에 안찰사와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정답) ③

해설) 건의안은 성종대 최승로의 시무 28조이다.

성종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은 먼저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하였다. 또한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어서 성종은 중앙의 통치 기구를 개편하였다.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2성 6부제를 기반으로 하고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다. 뒤에 송의 관제를 받아들여 중추원과 삼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세계통의 기구들이 어우러진 고려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③ 성종의 지방 제도 정비: 성종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으며, 지방의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였다.

문 8. 다음 정책을 추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격서 폐지 ○ 위훈 삭제 ○ 방납의 폐단 시정

- ① 경연을 강화하고 언론활동을 활성화하였다.
- ② 갑자사화를 주도하여 훈구세력을 몰아내었다.
- ③ 소수서원을 설립하여 유교윤리를 보급하였다.
- ④ 관리들에게 ‘신언패(慎言牌)’를 차고 다니게 하였다.

정답) ①

해설)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의 문물 제도가 정비되는 16세기를 전후하여 사림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였다. 사림들은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과 대립하였다.

훈구 세력은 세조의 집권 이후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세습적으로 장악하고, 왕실과 혼인하면서 성장한 세력이었다. 이들은 조선 초기에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들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사림이라 부른다. 이들은 훈구 세력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였던 데 비하여 향촌 자치를 내세웠고,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사림 세력은 중앙의 권력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를 장악하려는 훈구 세력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자치적인 세력 기반을 쌓으면서 성리학 적 향촌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림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하였다.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성종 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성종을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② 두 차례에 걸친 사화(무오·갑자 사화)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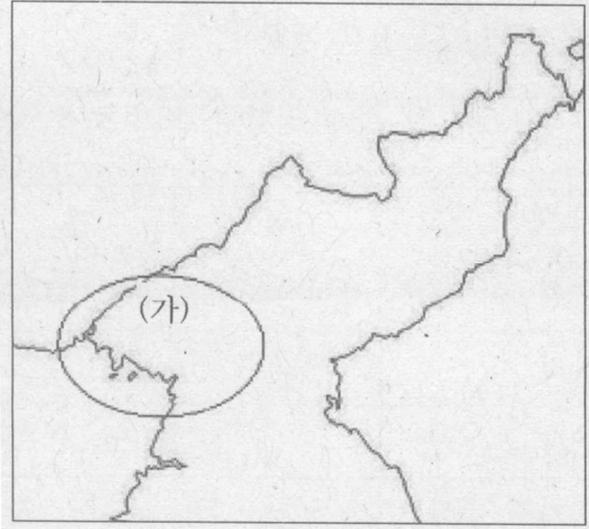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①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의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③ 소수서원은 1541년(중종 36)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이듬해에 이곳 출신 유학자인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사묘를 설립하였다가 1543년에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이 시초임으로 조광조와는 관련이 없다.

④ 연산군에 대한 설명이다. 신언패란 조선 시대 연산군 때에 관리들에게 말을 삼가도록 하기 위해 차게 한 패로, 연산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문 9.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획득하였다.
- ② 홍경래의 난 때 봉기군이 점거하였다.
- ③ 이성계가 4불가론을 내세우며 회군하였다.
- ④ 내상이 거점으로 삼아 대외 무역을 전개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①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획득한 지역은 강동 6주이다. 10세기 초에 통일된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송과 연결되어 있던 정안국 및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거란은 먼저 정안국을 정복한 고려에 여러 차례 침범해 왔다. 처음 거란은 80만의 대군으로 침입해 왔다(993). 거란은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을 것과 송과 교류를 끊고 자신들과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는 청천강에서 거란의 침략을 저지하는 한편, 서희가 거란과 협상에 나섰다. 이 때 거란으로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한편,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다.

강동 6주는 홍화진(의주), 용주(용천), 통주(선주), 철주(철산), 귀주(귀성), 광주(광산)이다.

② 19세기 세도정치로 인해 국가 기강이 헤이해지면서 탐관오리의 부정은 극에 달했고, 농민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갔다. 이에 농민은 종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항거, 봉기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배층의 부패에 대응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홍경래의 난이다. 조선 후기 발생한 홍경래의 난을 주도한 홍경래는 본관은 남양이며 평안도 용강 출신이다. 홍경래의 난은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 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개월만에 평정되었다.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사회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아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관리들의 부정과 탐학은 시정되지 않았다.

③ 원의 세력이 쇠퇴하고 새롭게 등장한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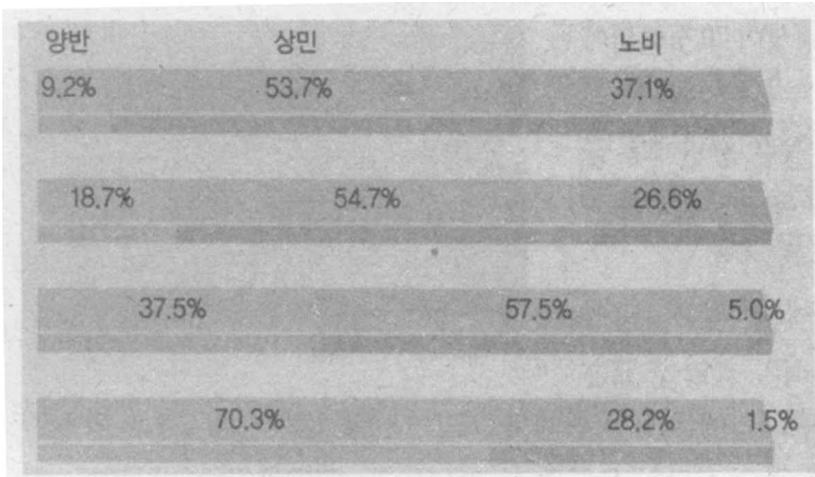
위화도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위치한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사대부 세력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④ 조선 후기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사상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들은 공인의 성장에 자극받아 역시 도고사상으로 성장했다. 즉 지방 장시의 객주 여각들이 도고로 발전하여 전국적인 상업망을 개척하였으며, 특히 물산의 집산지나 유통의 중심지 등 상업활동이 유리한 지역의 상인들도 종전의 상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특히 동래의 내상은 왜와의 사무역을 통해 거상으로 성장했으므로 (가)와 거리가 멀다.

문 10. 그림은 대구 지역의 신분별 인구 변동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작 농업으로 부농층이 등장하였다.
- ② 납속책이 실시되고 공명첩이 발급되었다.
- ③ 노비 종부법이 실시되었다.
- ④ 서얼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다.

정답) ③

해설)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노비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아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① 조선 후기 농민들은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에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② 임진왜란 때 군량을 모으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실시했던 납속책이나 공명첩의 발행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부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시행되어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합법적 수단 외에도 농민들은 불법적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기도 하였다. 상업적 농업을 통해 조금 여유가 생긴 평민이나 노비들이 관가에 뇌물을 바쳐 호적을 고치거나 족보를 구입하고 홍패(紅牌;과거합격증)를 위조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양반이 되었다.

③ 노비 종부법이 아니라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었다.

노비종부법이란 양인(良人) 남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한 신분법을 말하고, 노비종모법이란 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役) 및 주인을 결정하는 데 모계(母系)를 따르게 한 법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 노비는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부단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공노비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자 공노비를 종래의 입역 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전환시켰다. 신분을 상승하지 못한 노비들은 도망을 통하여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렇게 노비의 도망이 확산된 이유는 도망간 뒤에도 임노동자, 머슴, 행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④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얼(양인첩의 자제:서, 천인첩의 자제:얼)과 중인 등 중간 계층의 역할도 커졌다. 서얼은 양반 사대부의 소생이면서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 갔다. (천자수모:賤者受母-한품서용(限品敍用)) 그리고 기술직을 담당하거나 이서로서 행정 실무를 맡고 있던 중인층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커면서도 역시 고급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 중인층은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신분의 상승을 추구하였다.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문 11. 다음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각 도의 공물은 이제 미포(米包)로 상납한다. 공인으로 삼은 사람에게 그 가격을 넉넉히 계산해 주어 미리 준비하게 한다. 그러나 본래 정해진 공물 그대로를 상납하는 이는 제때 내야 한다.

- ① 각 고을에서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공물을 부과하였다.
- ②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쌀·배·동전으로 징수하였다.
- ③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은 공물 부담이 경감되었다.
- ④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였다.

정답) ①

해설) 대동법 시행에 관한 지문이다.

방납의 폐단을 조정하려는 논의는 왜란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 가운데서도 대공수미, 즉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거두는 방안은 징수된 공납미를 정부가 지정한 공납청부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왕실 관아의 수요물을 조달케 함으로써 종래 불법적으로 관행되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 이를 통해 재정확충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15세기 후반 이후 유통경제의 성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양란 후에 다시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란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1608년 이원익의 주장으로 우선 경기도에 실험적으로 실시된 이후 1623년 인조 때는 강원도에,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 전라 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 숙종 때는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00년이란 시간이 걸

린 것은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해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 시행했기 때문이다.

② 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이 각종 현물 대신 미로 통일하여 징수하였고, 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뀌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종전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③ 무전 농민이나 영세농민은 일단이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농민의 공납부담이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나 대동 12두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는 당시 전세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 국왕이나 왕실에 상납하는 진상 공상이 여전히 존재했고, 또 지방 관청에서도 필요에 따라 현물을 징수하였기 때문이다) 또 미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는 배 슴 돈으로 대신 하도록 하고, 특히 충청 전라 경상 황해의 4도는 연해읍과 산군을 구별하여 각각 미 혹은 포 전으로 상납케 하였다. 지금까지의 현물징수가 미 포 전으로 대신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졌다.

대동법의 실시로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혜청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징수된 대동미를 물중에 따라 지정된 공인들에게 공물가로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각 공방 관청에 공급하였다. 공물조달이 선혜청에 의해서 일원화되었던 것이다.

④ 대동법에 의한 조세의 금납화는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공인들의 활동으로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하며 수요품을 생산하는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문 12. 다음은 갑신정변 당시 발표된 정강의 일부이다. 각 정강에 담겨진 개화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조 : 흥선 대원군을 빨리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 할 것
- 3조 : 지조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를 뿌리 뽑고 백성의 곤란을 구제할 것
- 12조 : 재정은 모두 호조에게 관할케 하고 그 밖의 재무 관청은 폐지 할 것
- 13조 :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

- ① 1조 -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폐지하였다.
- ② 3조 -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생활수준을 개선하였다.
- ③ 12조 - 재정을 일원화하여 지나친 조세 징수와 낭비 등을 막았다.
- ④ 13조 -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여 근대적 정치개혁을 이루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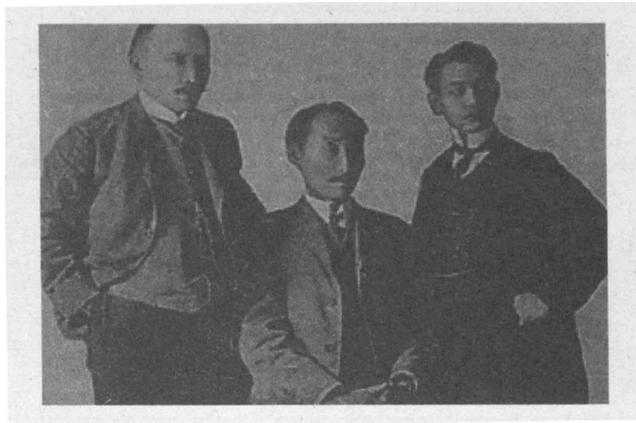
정답) ②

해설) 개화당은 1884년 흥영식이 총판으로 있는 우정국의 개국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것이 갑신정변이다. 이들은 왕과 왕비를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기고 일본군으로 호위케 한 뒤, 왕명으로 궁에 들어오는 민씨 일파의 대신들과 각 군영의 영사들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다시 국왕과 함께 창덕궁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14개조의 혁신정강을 마련하였다. 이 혁신정강의 내용은 문벌폐지로 국민의 신분상 평등을 규정하고, 지조법을 개혁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며, ③ 호조로 일원화하여 지나친 조세 징수와 낭비 등을 막으려 하였다. 또한 내시부를 혁파하고 고관회의로 국정을 운영케 하여 ④ 국왕의 전제를 막으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실패하니 이는 청군의 출동 때문이다. 서울에 주둔하던 원세개의 청군 1500명이 고종이 환궁한 창덕궁을 공격하자 일본군은 패퇴하고, 김옥균 박영효 등이 일본으로 망명함으로 3일천하로 끝난다.

개화당의 정변은 ① 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양반 중심 지배체제 청산하여 근대적 국민 국가를 지향하는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정변 실패 후 청에 대한 조선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한층 청의 지위는 강화되었다. 일본은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에 대해 공사관의 건축비와 배상금 지불을 약속받았다. 1885 또한 일본은 열세에 몰리자 조선으로부터 청일 양국 군대 철수와 군대 파병시 서로 통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토지를 분배하자는 주장은 없었다.

문 13. 다음의 인물들이 관련 했던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의병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수 유생층이 주도하였고 동학의 잔여세력도 참여하였다.
- ② 신돌석 등 평민출신 의병장이 등장하였다.
- ③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가담하면서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 ④ 최익현은 체포된 후 쓰시마섬에 유배되었다가 순국하였다.

정답) ③

해설) 보기의 세 사람은 고종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헤이그 특사로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중이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중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호소케 했으나 이들은 현지 일본과 영국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일본은 이것을 문제로 고종 퇴위를 강요하였다. 이에 순종이 양위 받아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융희로 고치가 되었다 (1907.7)

③ 1907년은 정미의병과 관련 있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따라서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 항쟁은 한층 고양되었다. (정미의병)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강화되었고, 활동 영역도 간도와 연해주 등 국외로까지 확산되었다.

② 을사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을사조약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다시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 을사의병에서는 민중식, 최익현 등 양반 출신 의병장을 비롯하여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을사조약의 폐기와 친일 내각의 타도를 내세우고 무장 항전을 벌였다.

①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항일의병은 1894년부터 일어나고 이듬해 민비시해와 단발령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를 을미의병이라 한다. 종전의 동학농민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존왕양이를 내세워 일본군과 거류민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을미의병은 아관파천으로 친일정부가 무너지고 고종으로부터 해산을 중용하는 조치에 일단 해산하였다.

④ 최익현은 을사조약의 부당성에 항거하다가 1906년 12월 대마도에 유배되어 단식하다가 순국하였다.

문 14.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는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한성으로 올라와 무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시위대 장교로 군인생활을 시작하였다. 강화도 진위대 대장 시절에는 공금을 횡령한 강화부윤이 자신을 모함하자, 군직을 사임하기로 하였다. 그는 군인이면서도 계몽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강화읍에 보창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전후하여 무력항쟁과 친일파 대신 암살 등을 계획하였으며, 강화 진위대가 군대 해산에 항의하여 봉기하자 이에 연루되어 체포되기도 하였다.

- ① 비밀결사조직인 신민회에 참여하였다.
- ②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 ③ 대동보국단을 조직하고 진단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 ④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정답) ③

해설) 이동회에 대한 설명이다.

- ① 1907년 4월 양기탁·안창호·전덕기·이동녕·이동휘·이회영등을 비롯한 다수의 애국계몽운동가들에 의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신민회(新民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원로회원으로서 교육과 출판 부문에서 적극 활동하였다.
- ② 노령의 근거지를 갖고 있던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휘는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혁명정부의 민족자결 정책 소식을 접하고 일찍이 1918년 6월에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공산당을 조직하고 볼셰비키 정부의 지원을 구하였다. 이후 이동휘의 국무총리 취임은 그에 대한 볼셰비키 정부의 호의를 증대시켜 레닌은 한인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운동자금까지 지원하였다.
- ④ 1914년에는 이상설(李相高)과 이동휘(李東輝)를 정·부통령(正副統領)으로 하는 대한광복군정부가 수립되었다.
- ③ 중국의 상하이시 국외 독립 운동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신규식은 1912년 대중교를 바탕으로 동계사를 조직하였고, 1915년 박은식과 더불어 대동보국단을 조직하였다. 따라서 이동휘와는 관련이 없다.

문 15.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역사연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재홍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사 형식으로 쓴 『조선사연구』를 편찬하였다.

의 협상 대표였던 신헌을 정사로.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을 부사로 하는 사절단을 청나라로 보내어 슈펠트와 접촉, 1882 4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서양권 국가와 처음으로 맺는 외교관계였다. 이 조약이 미 의회에서 가결되고 이듬해 초대 공사로 푸트가 부임한다.

ㄴ. 조일수호조규부록(1876) : 조일수호조규부록의 내용은 아래도 같다.

1. 일본인의 개항장에서의 통행거리 설정(사방10리), 일본외교관의 여행의 자유
2. 일본화폐사용, 일본거류민의 거주지 설치.
3. 일본선박의 항세면제

ㄷ. 조영수호통상조약(1883)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거의 준용했다.

ㄹ. 제물포조약 (1882)은 임오군란 이후 맺어진 조약이다.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구식 군인, 하층민 등에 의해 임오군란이 일어났다(1882). 임오군란의 결과 일본과 배상금 지불, 일본군 주둔 등을 규정한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

문 17. (가), (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었던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가) 전등이 경복궁 내에 설치되어 불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고종은 문무백관과 함께 경복궁 내의 휘황한 불빛을 찬탄하면서 바라보았다.
 (나) 서울에서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의 구간에서 전차가 운행을 시작하였다.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 ① 광혜원 개원식에서 경영 방침을 연설하는 알렌
- ② 한성순보를 읽고 있는 정부 관리
- ③ 독립문의 준공을 축하하러 온 학생
- ④ 국채 보상운동에 비너를 기부하는 여성

정답) ③

해설) (가) 1887년 밤 경복궁에 들어온 전등으로 경복궁 내 건청궁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나) 1899년 서울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노면 전차가 최초로 운행되었다.

① 개항 이후 정부는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선교사들을 적극 지원하여 서양의료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였다. 1885년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후에 제중원)이 왕립으로 설립되고 1904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문을 열었다. 선교사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②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박문국을 설립하고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1883). 한성순보는 국내 소식과 함께 외국의 사건을 번역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정치, 법률, 재정 과학, 기술 물가 등을 모두 실어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후 개화파가 발간하던 한성순보는 폐간되었다. 후에 1886년 한성주보가 다시 간행되는데 이는 조선 정부가 여전히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③ 아관 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 내각이 성립되어 일본의 침략 세력은 일단 견제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자주성은 크게 손상되었고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 등은 자유 민주주의적 개혁 사상을 민중에게 보급하고 국민의 힘으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 1897년(조선 고종 34년) 독립문이 준공되었다. 독립협회는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영은

문(왼쪽)의 석조기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헐어버리고 바로 그 뒤에 독립문을 세웠다.

④ 1907년에는 국민 모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아서 경제 자립과 국권 수호를 이룩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상공인과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전 국민으로 확산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어 절약한 돈이나, 비녀와 가락지 등과 같은 패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성금으로 내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문 18.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둘째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나) 소작문제는 소작인 자체의 자각이 아니면 안 될 거시오. 소작인의 자각을 지금 상태와 같이 산산이 개개의 행동으로 보아 아무 조직적 단체가 없으면 문제의 이해를 연구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 함도 생각지 아니할지며, 아무 일도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작문제 해결은 굳세게 신념하고 이를 선언하노니, 조선의 소작인은 단결하라. 단결하여야 살 것이다.

- ① (가)를 추진한 대표적인 단체로 근우회가 있다.
- ② (나)는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가)는 차별적 사회질서를 극복하고 평등사회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 ④ (나)를 주도한 세력은 (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정답) ④

해설) (가)는 물산장려운동이다 일제 강점기 1920년을 전후하여 많은 한국인이 기업 활동에 참여하였다. 농업 경영과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주나 상인중에서 일부가 회사 설립에 참여 하였다. 그들은 경성 방직 주식 회사나 여러 곳의 고무 공장, 평양의 메리야스 공장 등을 경영하였다.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경영한 기업이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대자본과 경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기업 활동은 경쟁이 심하지 않은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내 수공업과 연계를 맺으면서 중소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산장려운동은 부르주아 운동으로 실력양성론을 표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나) 소작쟁의이다. 일제 강점기에 농민은 높은 소작료와 불안정한 소작 기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쌀의 반출을 위해 지주를 지원하고, 일본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였다. 이에, 농민과 노동자는 소작 쟁의나 노동 쟁의를 일으켰는데, 이는 생존권 투쟁이자 경제적 민족 운동이었다. 초기의 소작 쟁의는 소작료 인하 등 생존권을 지키려는 경제적 투쟁이었

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민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노선 변화와 맞물려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의 합법적 농민 조합대신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 조합을 조직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좌절되었다.

④ 부르주아(실력양성론) 운동은 자치운동으로 변질되어 후에 사회주의 세력에 비난을 받았다.

문 19. 다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5년 말 현재 남한의 토지 소유 상황>

(단위: 만 정보)

구 분	답	전	계
농경지	128 (100%)	104 (100%)	232 (100%)
조작지	89 (70%)	58 (56%)	147 (63%)
전(前) 일본인 소유	18	5	23
조선인 지주 소유	71	53	124
자작지	39 (30%)	46 (44%)	85 (37%)

- ① 유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이었다.
- ② 임야 등 비경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③ 신한공사를 핵심 추진 기관으로 삼았다.
- ④ 북한의 토지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②

해설)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수립이후 이승만 정부는 여론의 압력과 좌익의 사회운동 격화 그리고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더 이상 토지개혁을 미룰 수 없음을 깨닫고, ‘농지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지주 출신이 많았던 국회에서 오히려 견제를 받다가 1949년 6월에 가서야 ‘농지개혁법안’이 제정되고, 1950년 3월에 동시행령이 공포되었다. 그 결과 총경지의 약 40%에 달하는 89만 2천 정보의 땅이 유상매입, 유상분재의 원칙에 의해 재분배되었는데 3 정보 이하의 땅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정보 이상의 땅도 지주들이 이미 팔아버린 경우가 많아서 개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농지개혁법은 토지를 3정보로 제한을 두어서 지주들에게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북한에 비해 온건한 것으로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이지만, 그 대신 지주들의 피해를 줄여 북한과 같은 부작용은 없었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데 일조하였다. 정부는 지주의 토지를 연평균 생산액의 1.5배로 가격을 매겨 사들여서 소작인들에게 분배하고, 5년간 현물로 땅값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소작인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주제도가 없어지고 소작인이 자작농으로 상승한 것은 역사상 큰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농지개혁기간 동안 한국전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였다. 기생지주를 배제하고 건전한 농가경제를 기대하였으나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에 따른 빈농의 곤란으로 자기소유 농지를 방매하고 부농이 이를 겸병하여 신흥지주계층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①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의해 재분배되었다.
- ② 1950년 2월부터 실시한 농지개혁은 대부분의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며 자경농지 임야 대지 등은 농지개혁에서 제외되었다.
- ③ 신한공사는 미군정이 1946.2에 설치한 것으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농지개혁 법안 심의 실패로 전면적 농지개혁이 유보되자 1948.3에 해체되었다.
- ④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을 시행했고, 1946.3에 개혁을 단행하여 남한보다 앞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문 20.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①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의 몰수 등이 가능하였다.
- ② 기술관을 포함하여 고등관 3등급 이상의 관공리는 공소시효경과 전에는 공무원 임용이 불허되었다.
- ③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④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유산의 몰수 등이 가능하였다.

정답) ②

해설) 자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란 1945년 8월 이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제정되었던 법률을 말한다.

친일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몰수, 공민권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 ③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특별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재판은 단심제로 하고 공소시효를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50년 9월 22일까지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정당시부터 친일분자의 견제를 받았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관직에 있던 자를 중용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949년 6월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에 헌병 또는 경찰로 친일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경찰간부를 조사하자 경찰이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을 연행하고 서류를 압류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친일분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던 일부 의원이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법률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949년 8월로 앞당겨지고, 1949년 9월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특별조사위원회·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이관되었으며, 이 업무는 1950년 3월까지 대법원·대검찰청에 의하여 수행되

었다.

이 기간 동안 680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정지 18인 등 30인만이 제재를 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7인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친일과의 숙청작업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② 이 법은 공소시효가 없었다.